부산불심 노인복지로 앞장선다

범어사, '빨래방 白衣民族' 개업
세탁 봉사 통해 일자리 제공

양정 · 개금복지관 '실버와 그린…'
산학 협동 · 신개념 활동 도입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과 대구 불교계가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관장 강규성)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빨래방 白衣民族(백의민족)'을 5월 1일 개업하며, 불교사회복지회 대구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나눔의 가게(재활용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박용하)는 부산여자대학과 연계, 복지 네트워크 형성에 나섰다.

'빨래방 白衣民族'은 풍년떡집, 해피케어 등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4명의 고정인원을 비롯 총 20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빨래방은 25kg, 18kg 2대의 세탁기와 건조기 1대, 간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세탁기 시운전 등 개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빨래방 白衣民族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주요사업은 인근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가정파견봉사에서 소화할 수 없는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빨아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재오 담당 복지사는 "빨래방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이자,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며 "빨래방 시설에 필요한 행거, 빨래바구니, 중고 TV 등이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후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051)516-3045

한편 양정재가복지센터와 개금복지관은 4월 16일 부산여자대학 마리홀에서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 및 '노인학대 쉼터 노인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대학의 물적 · 인적 자원을 활용한 노인 복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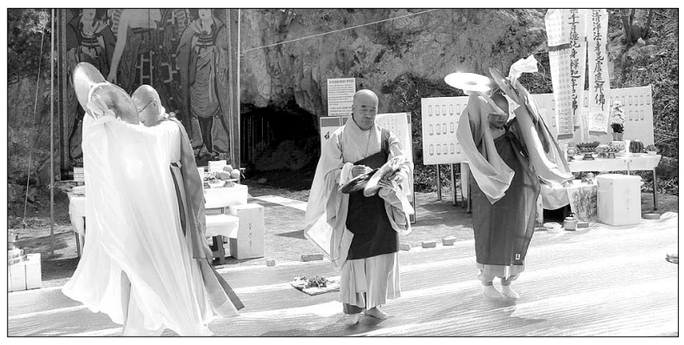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피부미용과, 차문화복지과, 제과제빵과, 호텔조리과, 안경광학과 등 5개 학과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들과 연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발마사지, 이 · 미용 서비스, 물놀이, 낙엽 밟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전문성을 살린 봉사경험을, 어르신들에게 외로움 해소와 문화욕구 충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최초로 시도되는 산학 협동의 복지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을 기획한 윤기혁 실장은 "젊음과 연륜의 만남은 일방적인 서비스와 복지 개념을 탈피, 상호 교류와 나눔의 복지개념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15명 정도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나눔의 가게는 준비 단계에서 자금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힘으로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인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구상 중이며, 6월에는 매장마련을 위해 노인들이 직접 일일호프를 연다. '나눔 가게'에 함께 할 어르신을 모집중이며 모집기간은 4월 21일까지(053)471-8900

천미희 · 배지선 기자

경산 '코발트광산' 영가 천도재



한국전쟁 전후에 억울하게 숨진 영가들을 위해 코발트 광산 앞에서 펼쳐진 천도재 현장.

54년만, 150여명 참석

경산과 청도 및 기타지역 코발트광산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공동회장 이태준, 이동췰)가 4월10일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앞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억울하게 숨진 수천의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거행했다.

괘불이운, 영가들에 대한 관욕, 원명스님 법문, 지장불공, 시식 순으로 이어진 이날 천도재에는 마산 태고종 관해사 자운 스님을 비롯한 강진 선각종 불영암, 광주 금정암 심향사, 나주 법정암 · 덕양암, 수원 원광사 등에서 온 8명 스님이 주관했으며,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이 법문했다. 그 외 경산 청도지역의 유족과 시민단체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여수 석천사 '하얀연꽃' 상량

무료노인복지시설 '하얀연꽃'의 상량식 모습.

720평 현대식 건물
60세 이상 노인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하얀연꽃'이 4월 11일 여수 돌산 평사리 바닷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 www.scsa.or.kr)가 건립중인 하얀연꽃은 임종을 앞둔 노인 복지시설로 이날 지역사암 스님과 신도, 지역기관장 등 1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서 진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사에 동참하는 자비실천행이야말로 아집과 욕망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발보리심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1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벽에 장식할 도자기 타일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고 상량문 그네타기와 불교의식 등 다양한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상량한 '하얀연꽃'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생활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1만여 평의 대지에 720평 현대식 건물이다. 복지건물에는 삼천불전 법당을 비롯 목욕실, 물리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10월경 완공된다.(061)662-1607

이준엽 기자

법련사 후불탱화 점안식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가 4월 19일 대웅보전에 봉안할 후불탱화(사진)와 영산회상의 삼천불탱화, 신중탱화 점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련사는 후불탱화 점안식을 기념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설정, 현해, 혜인, 암도, 근일 스님 등을 초청, 특별설법회도 가졌다. 또 19일부터 후불탱화봉안기념 기도법회를 시작, 25일까지 진행한다.

한명우 기자

인천불교회관 10일 개원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이 그 동안의 회관불사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인천전법도량 인천불교회관이 4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및 포교원장 도영 스님, 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 및 개원법회를 갖고, 인천지역의 포교거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회관이 여러분들의 법신을 장엄하기 위한 신행 · 수행공간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덕을 행해 해탈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은 "인천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종단 및 인천사암연합회,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신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지역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회는 시상식과, 종회의장 지하 스님의 격려사,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과 인천광역시 행정부 김동기 부시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은경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혜남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23일 입재 법회에서는 통도사의 자매결연사찰인 중국 불광산사 성운 대사 초청 법회가 열린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광주 5 · 18 행불자 영산재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을 기원하는 영산재가 4월 9일 국립5 · 18묘지 광장에서 열렸다.

5 · 18 행불자 위령제 봉행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영산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천도교 이철기 교령 등 종교계 대표와 5 · 18 민주화 단체대표, 행불자 가족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준엽 기자

팔공산 묘적암 산신재 · 음악회

경북 영천 팔공산자락에 위치한 묘적암(주지 성인)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산신대재를 거행하고 4일 오후2시 기원음악회를 개최한다. 011-9693-2930

배지선 기자

미얀마유학생 · 노동자 신년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18일 미얀마유학생 및 노동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양력 설날인 4월 17일을 기념하는 신년법회를 7층 법당에서 봉행했다.

배지선 기자

둥근 공으로 뭉친 '한마음'

경기에 앞서 한마음선원 광주 · 부산지원 소속 축구선수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 · 부산지원
화합 · 심신공부의 장 펼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과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렸던 4월 11일 광주환경시설공단 축구전용구장.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지원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등에 붙인 광주지원 응원단의 율동에 부산지원 청년회 응원단은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구호로 화답했다. 전후반 각 25분씩 2번의 경기 끝에 1대 1 무승부. 몸으로 부대끼며 하나 된 경기 동안 부산과 광주 신도들은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축구 경기를 하러 와서 마음공부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스님과 신도님들, 선수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축구공처럼 둥글고 원만하게 돌아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지원 축구단 박영백 단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2002년 1월, 타 지역에 비해 불심이 약한 광주지역에 축구를 방편으로 포교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창단 됐던 구도단이 2003년 창단, 훈련에 돌입한 부산지원 선수단을 초청하면서 성사된 이날 경기는 축구를 통한 정진의 시간으로 회향됐다.

구도단 주최의 행사였지만, 신도회가 공양 준비를 자청했고, 남편이 선수로 뛰는 보살들은 응원단을 결성, 맹연습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날 경기는 축구를 통한 부산과 광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 더해 광주 신도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보태지면서 법담을 나누며 도반애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됐다.

광주=천미희 기자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제44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팔만대장경 정대불사(八萬大藏經 頂戴佛事)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팔만대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전할 때 많은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지난 61년 이후 올해로 44년째 해인사에서 봉행해 오고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는 인류문화의 보고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진심으로 수호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해인사를 대표하는 최대의 행사이며, 법보신앙의 꽃입니다.
특히 이번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는 최고의 동판대장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검수하고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검증한 동판 팔만대장경 경판의 완성본을 부처님께 바치는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을 더불어 봉행합니다. 최상의 공덕이 될 이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한없는 복덕과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회일정안내

■ **일 시 : 2004년 4월 27일(화) ~ 4월 28일(수) [음 3월 9일 ~ 10일] 양일간**

4월 27일(음 3월 9일)
- 시 련 : 오후 4시
- 입 재 : 오후 6시
- 해인삼매법문 : 오후 7시
- 대령관욕 : 오후 10시

4월 28일(음 3월 10일)
- 영가천도 : 오전 4시
- 괘불봉안 : 오전 8시
- **동판대장경 봉정식 및 정대법회 : 오전 9시**
- 회 향 : 오후 1시

■ **증명 :** 법전 대종사 ■ **법어 :** 지관 대화상 ■ **법사 :** 원융, 종묵 큰스님
※ 동참금 : 30,000원(1인) ※ 영가동참금 : 영가1위당 10,000원
■ **접수안내 :** 접수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종무소
천도법회 사무실 : (055)934-3105~6 FAX (055)934-3107
■ **온라인접수 :** 농 협 843174-51-003929 (예금주 :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327 (예금주 : 해인사)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전화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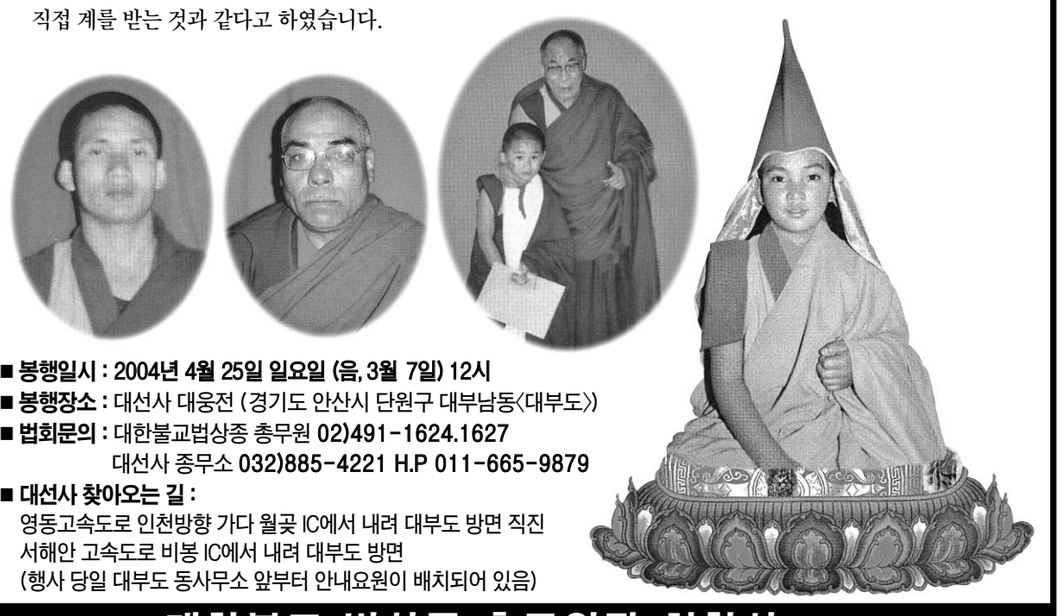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박세민 합장

대한불교법상종

봉 생불 잠보라마 초청 수계 대법회 행

본 종단에서는 잠보라마 생불 초청 국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인정하는 환생 생불이신 잠보라마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시고 큰 공덕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달람살람 사원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인증하는 환생불이신 잠보라마님에게 수계를 받으시면 석가 세존님께 직접 계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 **봉행일시 : 2004년 4월 25일 일요일 (음, 3월 7일) 12시**
■ **봉행장소 :** 대선사 대웅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대부도〉)
■ **법회문의 :**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 02)491-1624.1627
대선사 종무소 032)885-4221 H.P 011-665-9879
■ **대선사 찾아오는 길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가다 월곶 IC에서 내려 대부도 방면 직진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IC에서 내려 대부도 방면
(행사 당일 대부도 동사무소 앞부터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음)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최학산 합장

※총무원 공지사항 : 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포교사 신분증 미교부자 교부바랍니다. 2004년 5월 20일까지 총무원으로 연락 바랍니다.